

제3권 (7단원 : 은혜로운 교회 생활)

(제41과) 주께서 명하신 세례(물세례)

- 본문 : 로마서 6:1-14
- 요절 :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5)
- 찬송 : 190장(새찬송가 258장), 209장(새찬송가 285장)

세례는 성찬식과 함께 교회가 사도 시대로부터 행해온 중요한 의식(儀式)에 속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을 통해서 그의 신자됨을 교회 앞에서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세례 의식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행하던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규례나 의식과 다르며, 또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와도 다른 것입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하셨는데, 바로 이 명령이 교회가 베푸는 세례의 근거입니다.

1.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과 초대 교회가 복음 전도와 함께 세례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얼마 후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설교하였더니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제자가 된 사람이 무려 삼천 명이나 되었습니다(행 2:38~41). 그 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였는데, 그 때 역시 복음을 믿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고(행 8:12), 그 조금 뒤에는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행 8:26~39).

또한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은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물세례를 받은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 때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중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본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행 10:44~48).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행 16:33). 그 간수는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자 곧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체 말고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나 교회의 전통으로 보나 합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고백한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집례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세례 받는 자의 몸 전체를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일으키는 방법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며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3,5)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란 죄 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어 장사지낸 바 되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바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편견이나 고집으로 세례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요,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들기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세례를 받은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벧전 3:21). 따라서 세례 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자신의 지체를 사육을 따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롬 6:10~13).

세례 받은 성도가 세상을 좇아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나 떠난 애굽을 동경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전 10:1~2)는 말씀과 같이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에 속한 그들의 죄악된 삶을 장사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다시금 애굽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식물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셨으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일을 거울삼아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례 받은 자답게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례는 주님의 명하신 바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로 인침 받는 거룩한 의식이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상에 알리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서약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